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 PGA 챔피언십 3R

최경주 메이저 톱10 진입

우즈 7언더 선두 굳혀

더위에 눌렸던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모처럼 활기찬 샷을 날리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89회 PGA챔피언십 상위권으로 진입했다.

지난 이틀 동안 버디 1개에 그쳤던 최경주는 12일(한국시간)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스 골프장(파70·7천131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를 2개를 범했지만 버디 4개를 뽑아내며 2언더파 68타를 쳤다.

이번 대회 들어 처음 언더파 스코어를 낸 최경주는 중간 합계 이븐파 210타로 전날 공동 19위에서 공동 6위로 뛰어 올랐다.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1타를 줄여 7언더파 203타로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 역전 우승은 사실상 힘들어 졌지만 최경주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노리게 됐다.

최경주는 4개 메이저 대회에서 2004년 마스터스 3위와 PGA챔피언십 공동 6위, 올해 브리티시오픈 8위에 오르며 각각 자신의 대회별 베스트 성적을 냈다.

1,2라운드 때 보다 훨씬 활기찬 경기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홀을 살짝 비껴나가는 볼이 얄미웠다. 최경주는 4번홀(파4)과 5번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기분좋게 출발했지만 7번홀(파4)에서 전날에 이어 다시 보기를 범하며면서 주춤하는 듯 했다.

하지만 11번홀(파3)에서 버디로 만회한 최경주는 13번홀(파5)에서는 깔끔한 버디를 성공시키며 기세를 올렸다.

이 홀에서 2타만에 볼을 그린에 올린 최경주는 10m가 넘는 이글퍼트를 노렸지만 아쉽게 홀 왼쪽으로 빗겨가 가볍게 버디 퍼트로 마무리했다.

14번홀(파3)에서도 최경주는 버디 찬스를 잡았지만 홀에 조금 못 미쳤고 17번홀(파4)에서는 1타를 잃었다. 전날 역대 메이저대회 최소타 타이 기록(63타)을 수립했던 우즈는 버디 2개와 보기 1개로 숨을 죽였지만 PGA챔피언십 네번째 우승이자 통산 13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은 1타를 잃었지만 6오버파 216타로 공동 4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1라운드 선두였던 그레임 스톰(잉글랜드)은 5오버파 215타로 공동38위까지 떨어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타이거 우즈가 12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서던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 PGA 챔피언십 3라운드 14번홀에서 벙커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이모저모

부 위클리 대회 최저타(63타) 18번홀서 놓쳐

○…제89회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또 한 번 63타 기록이 나올 뻔했다. 11일(한국시간) 열린 2라운드에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역대 메이저대회 최저타 타이기록인 63타를 친 데 이어 12일 3라운드에서는 부 위클리(미국)가 마지막 18번 홀에서 버디를 잡았더라면 63타를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클리는 약 12m 거리에서 퍼팅을 세 번이나 해 보기에 그쳐 65타로 라운드를 끝냈다. 이날 5언더파를 친 위클리는 3라운드까지 이븐파로 공동 6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미국, 유럽팀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 연합팀이 겨루는 프레지던트컵에 출전할 선수들이 가려지게 되면서 누가 마지막 티켓을 따낼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팀의 경우 2006년 첫 대회부터 이 대회까지 상금 순위 상위 10명이 자동 출전권을 따내게 되는데 루카스 글로버, 존 롤린스, 브렛 웨터릭이 10위부터 12위를 달리고 있다.

롤린스가 이 대회 컷 탈락하면서 자동 출전권 획득에 실패했고 글로버와 웨터릭이 남은 한 장을 놓고 경쟁하는 형국인데 글로버는 3라운드까지 9오버파로 공동 63위, 웨터릭은 5오버파 공동 38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최경주는 인터내셔널팀 6위를 달리고 있고 양팀 주장인 잭 니클러스와 개리 플레이어가 이 대회가 끝난 다음날 와일드카드 2명을 지명하게 된다.

○…'메이저 무관의 제왕'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가 스코어 카드를 잘못 적어내 실격됐다.

가르시아는 3라운드가 끝난 뒤 17번 홀에서 5타를 쳐 보기를 해놓고 4타라고 적힌 카드에 사인해 실격 처리됐다. 가르시아는 어차피 9오버파 219타로 3라운드를 끝내 우승권에서는 멀어진 상황이었다. 가르시아와 한 조였던 부 위클리는 "잘못된 스코어를 적은 것은 내 잘못이지만 체크를 잘 하지 않은 가르시아의 탓"이라고 해명했다.

정슬기 女평영 잇단 신기록 행진

한국 여자수영의 기대주 정슬기가 11일 태국 방콕 타마삿대학교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여자수영 평영 200m 결승에서 역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50m 한국新 이어 200m서 대회新 기록

태권도 임수정·펜싱 이신미 각각 金 추가

24th UNIVERSIADE BANGKOK 2007

한국 여자 수영의 기대주 정슬기(19·연세대)가 2007 하계유니버시아드 여자 평영 2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정슬기는 지난 11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태국 타마삿대학교에서 열린 여자 평영 200m 결승에서 2분24초67의 대회 신기록으로 일본의 가네토 리에(2분25초63)를 여유롭게 제치고 금메달을 땄다.

결승 전까지 종전 신기록은 이날 오전 예선에서 가네토가 작성한 2분25초79였다.

정슬기는 지난 해 8월 캐나다에서 벌어진 범태평양수영대회에서 작성한 종전 한국 신기록(2분27초09)도 1년만에 2초42 단축했다.

또 1995년 일본 후쿠오카대회에서 지상준이 남자 배영 200m에서 금메달을 딴 뒤 12년 만에 한국 수영에 유니버시아드 금메달을 안겼다.

이틀전 50m에서 32초24에 물살을 갈라 10년만에 한국신기록을 경신한 정슬기는 잇단 신기록 행진으로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으로 입지를 굳혔다.

정슬기는 경기 직후 "정말 기쁘다. 이렇게 좋은 기록으로 우승까지 할 줄 몰랐다. 부모님과 코치님께 감사드리고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권도에서는 임수정(경희대)이 여자 페더급 결승에서 태국의 프렘뮤 촌나파스를 8-1로 꺾고 금메달을 수확했고, 이강석, 황혜미(이상 우석대)는 각각 남자 페더급과 여자 라이트급에서 동메달을 한개씩 추가했다.

또 이신미(익산시청)는 여자 펜싱 사브르 결승에서 15-12로 푼딘 갈리나(우크라이나)를 꺾고 우승했고, 안미애(한국체대)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격에서는 김대웅(고려대), 오창윤(한국체대), 강형철(부산시청)이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서 1천694점을 합작해 러시아(1천716점)에 이어 은메달을 땄고 김민지(한국체대), 김애균(KT), 조아라(양산대)도 여자 스키트 단체전에서 199점을 쏴 2위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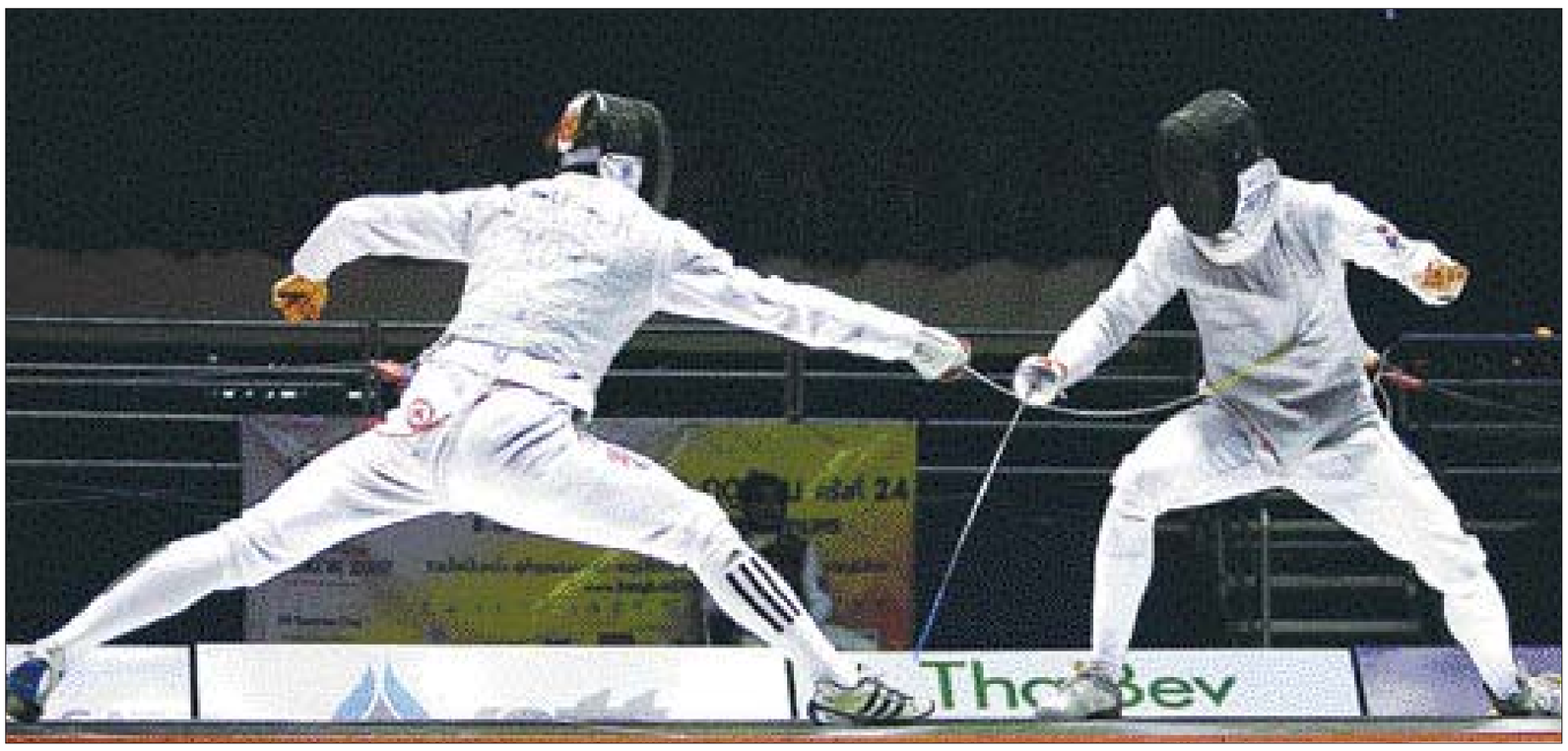
김애균은 여자 스키트 개인전에서 본선 및 결선 합계 92점(70+22점)을 쏴 동메달을 보탰다.

여자축구팀은 예선 3차전에서 폴란드에 극적인 2-1 승리를 거두며 D조 2위(2승1패)로 8강에 진출, 13일 A조 1위 북한과 남북 대결을 펼친다.

이밖에 12일에는 김혜성(동국대), 이우정, 김상도(이상 경희대)가 남자 10m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1천771점을 쏴 러시아(1천777점)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국가대표 김혜성은 이 종목 개인전 본선에서 593점으로 5위를 기록해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박자 빠르게 12일 태국 논타부리 임팩드 전시장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펜싱 남자 플러레 예선에 출전한 한국 손영기(왼쪽)가 러시아 체르미신을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고 장우람 14.1 이닝 노히트 노런

상원고전 18이닝 혈투…15회 후 3안타 허용

봉황대기 고교야구…광주동성고 2회전 진출

전주고 우완투수 장우람(18·사진)이 이틀에 걸쳐 14.1이닝 노히트노런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장우람은 12일 서울 동대문구장서 벌어진 제37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상원고(구 대구상고)와의 1회전 서스펜디드 경기에서 18이닝 3피안타 3볼넷 14탈삼진 무실점의 역투를 펼친끝에 연장 18회 1-0 승리를 이끌었다.

전주고는 이틀 간 4시간13분에 걸친 대혈투 끝에 연장 18회말 2사 만루에서 상대 투수 김민석의 끝내기 폭투에 힘입어 극적인 승리를 낚았다. 공교롭게도 김민석은 지난 6월 무등기에서 노히트노런을 작성했던 주인공.

전날 연장 12회 동안 1볼넷 1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고도 승부를 가리지 못해 12일에 다시 등판한 장우람은 14회까지도 안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15회 1사후 첫 안타를 맞는 바람에 공식기록은 깨졌고, 17회와 18회에도 각각 1안타를 내줬다.

비록 비공식이기는 하지만 14.1이닝 노히트노런 기록은 한국야구 103년 역사상 최장 노히트 노런 기록이다.

장우람 이전에 비공식 최장 노히트노런은 10이닝으로 프로와 아마야구에서 각각 1차례씩 나왔다. 삼성 배영수가 2004년 10월 현대와의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10이닝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고, 제주관광산업고 에이스 김성현도 지난달 14일 열린 대붕기 전국고교대회 청원고전에서 10회까지 단 한 개의 안타를 내주지 않았다.

당시 배영수는 0-0 동점인 연장 11회 마운드를 내려왔고, 김성현은 11회 안타를 얻어맞아 대기록을 놓쳤다.

9이닝을 기준으로 노히트 노런은 72년 역사의 일본 프로야구에선 73차례, 26년의 한국 프로야구에서 11차례밖에 안 나온 대기록이다. 132년 역사의 메이저리그에서 210번의 노히트 경기가 기록됐다. 메이저리그는 9회까지 노히트 노런이 성립될 경우 이후 안타를 맞아도 공식 기록으로 인정 받는다. 장우람의 이날 투구수는 214개로, 역대 고교야구 한 경기 두번째 최다 투구수로 기록돼 '혹사'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진흥고 정영일(LA 에인절스)이 경남고와의 청룡기 결승에서 16이닝 동안 던진 222개다.

한편 지난 11일 경기에서 광주동성고는 동산고를 9-1, 7회 콜드게임으로 물리치고 2회전에 진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